유럽 Computer 市場의 新動向

1. SICOB見聞録

파리에서 매년 열리는 SICOB'85(國際事務用品機器展)가 지난 9월 18일부터 27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1950년에 약 150개사의 출품으로 출범한 同 전시회가 금년에는 제36회를 맞이하여 약800수십개사가 출품했으며 会場도 國際展示会場과 파리市內의 國際会議場 등 두군데로 나누어 열렸다. 本來 사무용품, 備品 등과 같이 매우 보편적인 展示会였으나 최근 수년간에 보인 ME(Micro Eloctric)機器의 급격한 발전으로 내용이 일변되었으며 本館1層 중앙부를 차지한 약간의 文房具와 事務用家具備品 등의 展示를 제외하면 OA(Office Automation) 機器를 중심으로 한 ME機器展으로 변모하였으며 또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Business Computer Show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성장했다.

2. 延長線에서의 競合

올해는 전체적으로 업계의 침체무드를 반영했던지 뚝 떨어진 출품이 없었다.

오히려 Mini Computer, Personal Computer 등 Hardware는 이미 機能面에서 State of the Art(최첨단)에 도달하여 방향도 정해졌다는 인상이 깊다. 따라서 어지간히 技術的인 革新이 없는 한 당분간은 在來技術의 延長線에서 경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飽和狀態를 보이고 있는 Personal Computer업계에 대해 말한다면 軽薄短小가 진행하여 Portable, Hand held型 Personal Computer가 발전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번 SICOB'85에서 주목되는 것은 Hard disc의 소형·大容量化, Laser disc의 超大容量記憶媒体로서의 実用化 정도로서 기타 高解像 Graphic Screen, CAM用의 3次元 Graphic, Soft의 충실, 静止衛星 및 公衆回路 経由의 國際間Telecom의 실용화, Printer類의 充実등 예를들면, Laser Printer, Variable Dot Matrix 및 Color Printer 등이 돋보였다.

이들 各項에 대해 출품내용의 概略을 memo하면 먼저 Portable, Personal Computer 분야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出品maker도 Hewllet Packard, Compack, Ericson Grid Texas Instrument, Data General, Zenith 등의 업체에 더하여 日本勢도 몇개사가 참가하였다.

Processor도 거의 8088, 8086, 80C88 등으로 통일된 감이 있으며 主記憶容量, 補助記憶装置도 강력하여 通信機能에 보다 중점이 두어져 Home market용이라기보다는 business용 수요에 가늠대를 맞춘 인상을 받았다. Soft 면에서도 많든 작든 IBM·PC Compatible 路線을 채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Personal Computer, mini Computer용 Hard disc이지만 小型化, 大容量化가 더욱 진전, 가격도 적당하여 OEM maker의 판매작전을 한층 가열하고 있다. 예를 들면 Control Data(미국)의 8 inch Hard disc, 368MB, Blé社(프랑스)의 5.25inch Hard disc, 85MB, Prime社의 5.25inch, 140MB, 三菱의 5.25inch, 100MB. 3.5inch는 이미 4層 disc의 8 head 装置, 그리고 40MB의 Hard disc를 이미 발표한 바 있는 Newberi data(영국)가 한층 강력한 50MB

(미국 Fermat, Access time 40ms를 참고로 출품하고 있다. Hewllet Packard도 3.5inch로는 單層10MB를 출품했으며 이외의 Alps, 三菱 등도 複層10~20MB를 전시했음을 볼 수가 있다.

光學式 disc를 Computer의 大容量記憶媒体로서 이용하는 実用技術은 몇년 전부터 참고적으로 출품하였으나 SICOB'84에서는 Philips社가 Megadock라는 상품명으로 발표한데 이어 올해는 Alcatel tomson社(프랑스)가 Giga dock라 이름을 붙인 光學式 disc System을 발표했었다. 이것은 12inch disc에 片面 1000M Bit 両面으로 2G Byte의 判読, 熱変換 input가 가능한 장치를 가지는 System으로 Access time 5㎜.S라고 한다.

더우기 이 System을 이용한 jukebox라 불리우는 大容量, 高速 Access 記憶装置가 2社=Documatique社(프랑스)와 MC社(프랑스)가 参考로 출품했었다. 이것은 2G Byte의 disc를 합계 100장 수용하는 마치 jukebox의 mechanism에 닮은 구조를 가진 장치를 총200G Byte의 용량을 갖고 있으며 종전의 tape식 기억장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급하기가 쉽고, 高速 Access能力, Space절약, 保存能力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量産에 의한 Cost down과 Input data 변경의 mechanism의 개량으로 応用分野가 확대되는 장래의 유망주라 할 수 있다.

3. 急速하게 市場 拡大

유럽市場의 CAD·CAM의 도입은 일부 先進企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Slow이지만 Hardware의 충실(高解像度 graphic terminal, 高性能 Plotter 등) 또 Soft ware, 특히 Color 3D 방식을 사용한 Program의 충실로 급속하게 Market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금년의 SICOB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CAD·CAM에 관한 제품의 展示가 증가, 또 OA部門에서 볼 수가 없는 熱気와 진지한 눈초리의 見學者로 넘쳤다.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展示場은 IBM·PC 用으로 개발된 3D Soft를 展示한 CAD-master社, 마찬가지 IBM·PC用의 Personal Designer, Personal Architect를 발표한 Computer Vision社, 기타 Matra Data Vision社의 Euclid, 또 고참인 DEC, HP 등 亂戰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Soft House는 각각 장기인 専門分野에서의 market 進展을 노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견실하게 발전할 부문으로 볼 수가 있다.

다음으로 Telecommunication인데 이 분야는 일본에 비해 市場開放度에 있어서 欧美가 역시 한발 앞섰다. SICOB 開催地인 프랑스에서는 프랑스逓信部(통칭 PTT)가 公衆回線(통칭=Trans pack) 및 teletext網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출품업자도 다양하다.

北美大陸과 유럽大陸間에는 大西洋上의 静止衛星intelsat, Comsat, Eurosat 등이 이미 商用서비스에 들어간지 오래된다. 올해의 SICOB도 Satellite와 公衆回線을 이용한 telecommunication은 많은 maker가 출품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받은 展示場은 WIDCOM社(미국)로 여기서는 국제TV회의 System의 Demonstration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静止衛星을 이용한 大陸間 通信網에 Video 回線을 적재한 것으로 미국에서 이미 Service를 시작한 ATT의 Archunet와 Satellite를 중간에 끼어 국제통신을 하는 것이다. 각 단말로부터는 Color Video Camera로 人物像을 내보낸다든지, 光學判読装置로 바꾸어 書類의 Still이나 自筆Sign의 Still을 1Frame마다 送信하고 또 受信側에서 이의 Hard Copy를 할 수가 있다. Video映像은 毎秒80M Bit의 degital信號를 圧縮하여 56K Bit의 속도를 가진 通信網에 태워서 送受信하자는 것이지만 実用上으로는 아무런 탈이 없을 정도로 선명한 映像이다.

4. 統一規格의 움직임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등 公衆回線網이 값싸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또 Tomson과 Olivetti를 중심으로 하는 Personal Computer의 유럽통일규격의 움직임과 EC를 중심으로 하는 Consortium이 독자적인 Communication Satellite「Eurosat」를 발사하는 등 당분간 이지역의 움직임으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다.

유럽에서의 Personal Computer의 동향에 조금 눈을 돌려보기로 한다. 역시 business용 수

요를 겨냥한 IBM PC는 압도적인 강점을 보이고 있다. 上位모델인 AT도 작년에 참고적으로 출품되었으나 Hard disc/MS-DOS의 설계실패로 회수하는 소동을 벌였고, 뒤지고 있던 공급체제도 지난 여름에 겨우 궤도에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dealer측도 가을의 SICOB를 商戰의 계기로 삼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Business User에 대한 Application Soft도 micro Soft 와 Ashtontate 등과 같은 통합簡易言語Soft類가 강하지만 Soft House도 AT의 본격적인 판매체제에 呼応할 수 있도록 각종 전문분야에서의 Application Software, 예를 들면 CAD/CAM System, televideo, Microform System, Colorgraphic 등의 개발이 주목된다.

5. 뿌리깊은 需要를 자랑

Wang laboratories는 OA분야, 특히 Word-processor機는 본국인 미국에서 뿌리깊은 수요를 갖고 있으며 유럽시장에서도 Zerox, Olivetti 등은 IBM에 이어 시장 점유를 확보하고 있다. 同社의 Word processor는 관공서용으로 인기가 있으며 특히 유엔 및 각국의 國際聯合 및 각국의 국제연합OECD 등에서는 거의 표준機로서 채용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OA에 겨냥한 周辺器機(Photo Composer, Laser Printer, LAN wangnet, Image Computer 등) 화려하지가 않지만 타사가 접근하지 못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IBM과는 즉 Compatible 路線을 취하고 있는 同社지만 역시 IBM·PC의 OA분야에 육박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어 IBM 3270 Emulation, SNA Gateway에 대응한 Soft에 끼어 팔고있다.

그런데 UNIX인데 금년에는 搭載機의 수가 늘어나서 multi user, multi task OS의 主流를 이루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実用面에서 활발하지가 않다. 同OS搭載機의 설치대수는 작년도에 전세계에서 약20만대라는 통계가 있으나 유럽은 1만 수천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외에 여러가지 신제품이 나왔으나 기본적으로는 작년의 SICOB와 큰 차이가 없다. 약간 명확한 傾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의 하나에 Word processor 専用機의 쇠퇴와 typewriter의 Wordprocessor化를 들 수가 있다. Word-processor는 한때 IBM (Display writer), Zerox, Honeywell, Blé, Helmes presiser, wang 등 Share 쟁탈전이 심했으나 이제 대부분이 Personal Computer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Typewriter도 이만큼 심한 ME化의 물결을 받은 업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이며 체질개선이 늦어진 maker는 쇠퇴해가고 있다. 한편 ME化를 잘 도입한 maker, 예를 들면 Olivetti, Zerox, Addler, Canon 등을 多種多様化의 제품을 개발하여 압도적인 Share를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예를 들면 미국시장에서는 1978년도에 94%의 Share를 자랑했던 IBM도 1983년도에 17%의 Share로 격감했다. 이들 Electronic typewriter도 User의 필요에 따라 다양성을 갖게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64K RAM, 5.25, 3.5 인치 FDD를 内蔵하고 또 소형 CRT Screen을 결합한 것(Zerox 645)도 있을 정도이다. 또 거의가 通信Port(RS-232C)를 장치하고 있으나 그것이 가능하고 Personal Computer와 接続하여 低speed 이긴 하나 高品質印字 Printer로서 機能한다는 것도 말해 둔다.

이들 Supper typewriter로 불리우는 상품은 欧美에서 널리 Office에 침투하여 취급하기 쉽고 内蔵Soft의 性能向上, 比較的 값이 적당해서 OA분야에서 가장 成長率이 높다. 더우기 付記하면 Helmes의 60 Siries, Canon의 VP2000 등 別売의 CRT Disket driver 포함)를 typewriter에 접속하면 Wordprocessor만이 아니라 Spread Sheet Program까지도 가동시킬 수 있는 등 欧美에서의 事務処理의 대부분을 이들 比較的 廉価의 System으로 실현될 것이다. Personal computer maker로서는 생각하지도 않는데서 갑자기 강적이 나타났다는 느낌이다.

금후의 귀추가 주목되는 분야이다.